

축산업계 연대이익의

공신력으로 기업사명감 만끽!

—금성사료를 찾아서—

취재 : 이 흥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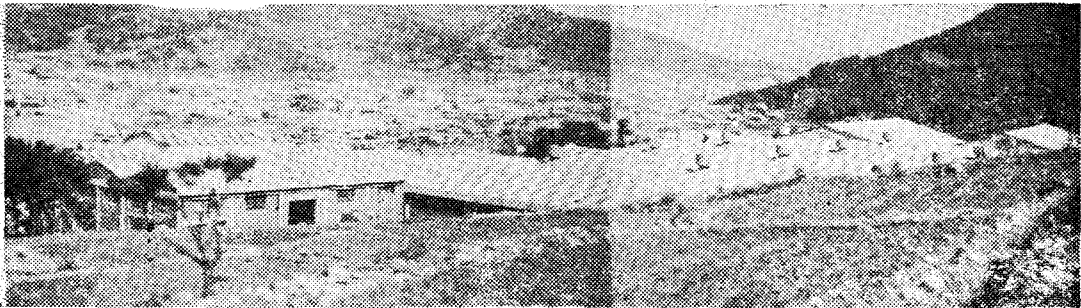
<장명식 사장>

기업은 한 개인의 전 용물이 아니다. 사회조직의 구성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업

이 발전하고 성장하여 대규모, 대형화 할수록 사회 전사로서의 임무가 더욱 막중한 것이다.

이달에 소개하는 금성사료는 업계와 함께 경영진로를 달려 나가려는 자세로서, 또 위의 임무를 충실히 숙지하고 실행으로 옮겨보려고 새로히 영남 일대에 출범한 기업의 하나이다.

우선 기사를 쓰기 이전에 대한양계협회를 충분히 인식하고 본회와 지부를 아껴주려는 금성식구들에게 감사를 들여야겠다.



<금성사료확장 공장전경>

이론과 실제에 의한 품질개선에 역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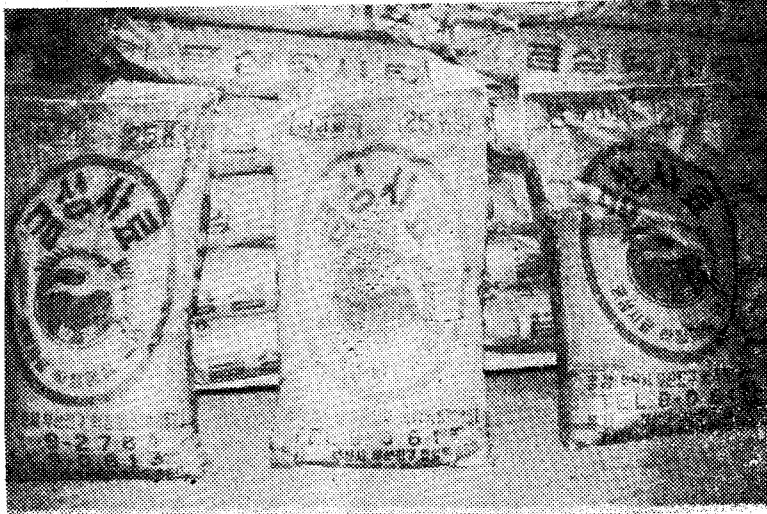
경남지부 정광영 총무와 본인이 부산시 부산진구 학장동 574~57의 금성사료(대표:장명식)를 방문했을 때는 2월 19일 오전 11시경, 금성사료가 가동한지 1개월에서 1일도 자라는 날이었으나 말끔히 정돈된 공장 내, 외부는 신설공장 답지 않게 안정감을 주었다.

반갑게 맞아주는 영업부 백연수차장의 안내로 공장의 공정과정, 창고, 실험실 등을 구경하고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박차장의 말에 따르면, 75년부터 4억정도를 투자하여 학장공장을 착공한 후 76년 1월 20일 가동을 하게 됐는데, 대지 4,453평 위에 전평 950평(원료창고 및 기계시설부분 포함), 변전실 등을 구비한

가장 현대적인 기계시설의 대규모사료공장으로 1일 생산능력 100톤에 월 3,000톤 이상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로 양계용이 50%로

제일 많고 양돈 30%, 낙농이 20% 비율로 각종의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있다.



<금성사료에서 생산되는 각종 배합사료>

그리고 금성사료는 금성제분(회장 : 장영순)이 모체라고 할 수가 있다. 금성제분을 위주로한 구성, 그룹으로는 유지공장, 포항의 제일중공업, 유니온제약 등에 이어 다시 축산업계에 금성사료를 설립하여 유지공장에서 나오는 호마박, 임자박, 채종박, 탈지강 등의 순도 100%의 양질원료와 유니온제약에서 나오는 사료첨가제와 금성제분에서 나오는 말분, 밀세실, 소맥피 등의 에너지 원료사료를 자체내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조달하며, 양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원료가격을 싸게들여 최우수 사료를 생산, 축산업에 기여하는데에 장명식 사장이 금성사료를 설립하게 된 동기라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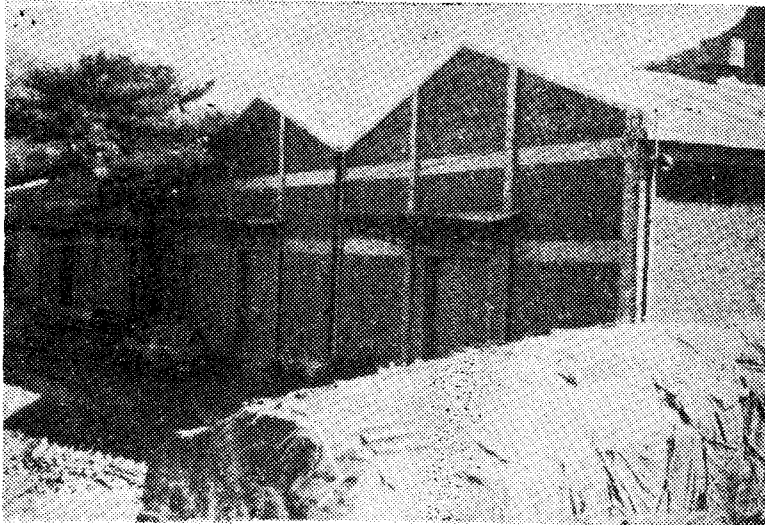
또 도정공장은 현재 본사공장과 같이있으나 76년 3월말까지 확장동 사료공장으로 이전 신설할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800여명의 원료창고에는 원료들이 군데 군데 동산을 이루고 있었는데, 옥수수 1,340톤, 대두박 150톤, 60%고단백여분 100톤, 임자박 130톤 그 밖에 부산물의 일부가 쌓여 있는 모양이란다.

본 기자가 요즘 축산업계에 사료의 고품질이 성 독소 문제가 특히 양계업자들에게 타격을 심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각 사료공장마다

골치거리로 여기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방지책 모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원료를 미리 확보해 놓자면 원료관리가 큰 문제거리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금성사료로서는 어떻게 원료관리를 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박연수차장은,

우리 공장은 이런 것을 감안하여, 원료구입부터 미리 부패여부와 수분함량을 철저히 점검하여 양질의 원료를 구입하며, 사료 저장용 깔판(다이)도 통풍이 잘 되도록 배치 및 적재하고 있고 벽과 바닥의 기초부터 완전 방수를 했기 때문에 곰팡이의 발생여건을 극히 줄이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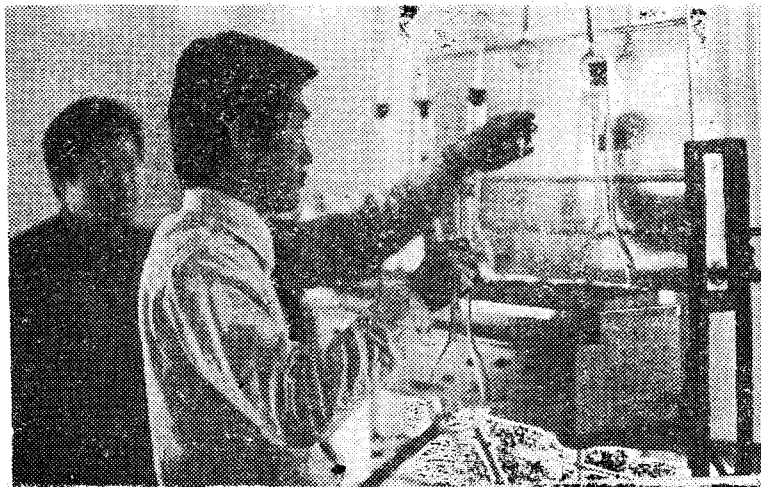
다음으로 들린 곳이 실험실이었는데, 15평 남짓한 실험실에는 깨끗이 빨아 걸려있는 여러개의 싸우이며, 비색계 등 기구류의 비치, 계속 실험중이었다는 표시의 시약의 내용새 등 실험정돈상태의 모든 것이 한눈에 실험실다운 신뢰도를 안겨다 준다. 박연수 차장이 정광영 총무와 나에게 정량분석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양축가나 생산자 모두가 신의의 거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금성사료는 품질개선에 역점을 두어 L.P(컴퓨터)가 내주는 데이터 표준치에 의해 이 실험실에서 분석하고 재 검



<800평의 원료창고 전경>

토하고, 이론과 실제가 부합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시험농장에서(아직은 축사만 지어 있음) 시험을 거쳐 생산하기 때문에 품질

이 양호한 사료와 안전성에서 자부를 합니다. ”라고 금성사료에 품질보장에 대해 은근히 P. R을 한다.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백연수 차장>

자체내 생산되는 원료 최대한 이용

우리가 실험실에서 내려와 손도현 상무와 대화를 나누게 됐을 때, 본인이 금성사료의 기업목적 및 정신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손도현 상무는,

“우리나라는 옛날과는 달리 문화와 경제성장으로 점차 곡류에서 육류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례하여 국민체위도 향상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허나 정부방침이 곡류도입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사료 자원을 최대한 개발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호응하여 우리 공장은 축산 백년대계와 국민체위 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자체내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보다 양질의 사료를 양축가에 공급하여 양축가에 이익은 물론 발전도상에 있는 축산업에 기여하고자 함에 기업의 목



<손도현 상무>

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여 국내 유수의 대규모 사료공장들과 맞서서 금성의 봉사정신의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것이 기업의 정신이라 보겠습니다.”라고 손도현 상무는 말하고 있다.



<생산공정 과정>

**“기업의 이윤보다 양축가에 이익”이
기업이념**

우리가 여러가지 환담을 나누고 있을 때 본사에서 장명식사장이 도착하였다. 그렇치 않아도 본사로 찾아가 금성사료의 경영이념을

적이 있다고 보며, 금성사료의 품질관리도 짐승이 먹는 사료라기 보다는 식품화되어 사람이 먹어도 된다는 정도의 제품

듣고 싶던차에 다행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 장사장은 “먼저 이렇게까지 방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겸손한 인사를 하며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저희 금성식구는 상하 구분없이 나 자신도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출선수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각 간부진 이하 일선에서 고생하는 영업부나 종업원 모두가 “기업의 이윤보다 양축가에 이익이 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기업이 사는 길이며,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라는 저의 투철한 경영이념의 속지아래 하나의 제품이라도 열과 성의로서 대하려는 의지가 샘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성의 제품은 결코 과장되거나 의형만의 가치는 인정치 않습니다. 오직 내재된 실체만이 경영전략의 근원이 돼야하며, 승자가 되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만은 품질면에서는 확신합니다.”라고 장사장은 경영이념을 말한다.

그리고 앞으로 식육공장과 어분공장을 설립, 금성자체내 소비는 물론 다른 사료공장에도 원료를 조달하여 국내 축산업계에 유감 없는 원료와 사료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장명식사장의 말씀이 회생정신으로 양축가를 대한다는 기업의 자세에서 학같이 고귀하고 깨끗한 금성그룹의 공동운명체로서 그리고 건실기업으로서의 면모를 축산업계에 참여하느라 재차 다졌다고 느꼈다.

소비자측 입장을 반영 최대한 애프터서비스

우리가 사장님께 인사를 한후 다시 영업부에 들러 백연수차장과 박도원과장에게 최일선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애로점도 많으시겠는데 앞으로 영업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예정이시며, 농수산부는 배합사료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 강력히 단속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수요자가 지나치게 가격에 얽매어 싼 사료만을 찾고 있기 때문에 사료공장은 품질보다 가격경쟁을 더 유발시키고 있는 예가 많은데,

금성사료는 자체내에서 싼 원료를 쓰고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가격도 싸고, 질도 좋겠군요? 양축가에게 어느 정도 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백연수차장 : 네, 현재 500톤을 생산판매했습니다만 양질의 사료라고 대단히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사료 가격은 시중 가격의 최상한선입니다. 이것은 질이 그만큼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 영업부에는 축산기술자 5명과 의사 1 명으로 구성되어 일반사양판리의 상담 및 현지진료 등의 아프터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원을 더욱 확보, 양축가를 위한 봉사를 아끼지 않을 자세입니다.

박도원과장께서는 일선에서 양축가와 접촉이 가장 많으실텐데 양축하는 분께 하고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금성사료는 언제나 소비자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정밀성을 항상 고려하여 보다 나은 제품생산과 품질 향상에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축산물 소비량도 앞으로 점점 늘것 이므로 양축가 여러분도 너무 근시안으로 불황이 왔다고 너무 실망 말고 호황이 왔다고 대규모 확장하는 것을 지양하면서, 경영합리화를 이루고 꾸준한 노력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감에 우리 축산업자가 갖어야 할 자세이며, 양질의 사료에 의한 사료효율의 극대화를 이루는 것이 양축경영에 큰 소득을 얻는 길이라 생각드는군요. 라고 말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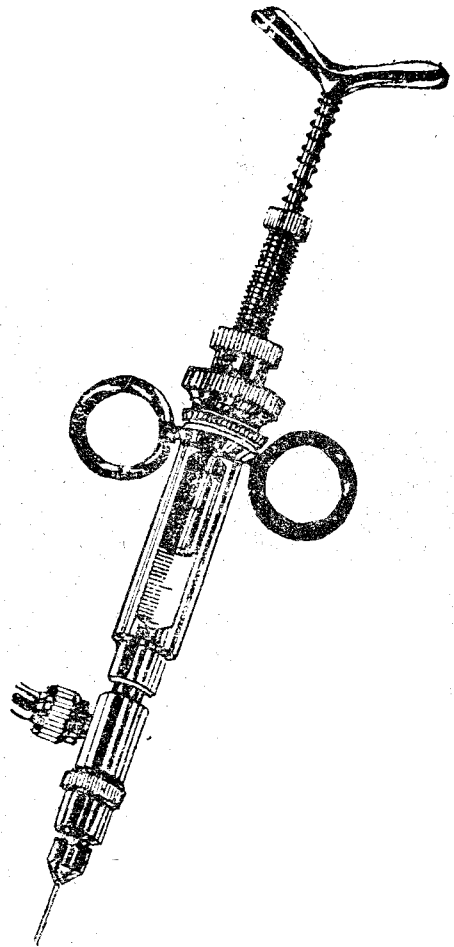
이와 같이 금성사료는 축산업의 연대이익의 공신력으로 기업의 사명감을 갖고 업계에 봉사하는 정신으로 기업의 사명감을 만끽하면서, 활발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이런 금성사료의 앞날에 서광이 비칠 것을 빌면서 본 기자와 경남지부 정광영총무는 금성사료를 떠났다.



양계용

연속주사기 입하 (독일제)



덕수 가축 약품상사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44-3
TEL : 28-6798. 0645